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6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6

시절 인연	02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1	희목관찰중생 喜目觀察衆生 주아신 2
법정 스님 편지	14	이번 집 고치는 일에 참으로 애 많이 썼다
법정 스님 향기	16	법정 스님이 사랑한 '나무'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8	말없는 언약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6월 1일 발행 / 통권 364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나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 **이계진** 연꽃의 의미는 조용한 자태와 함께 맑은 향기를 주는 소박함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말씀도 역시 화려하지 않은 가운데 좋은 향기, 맑은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 연꽃 같은 분인 법정 스님을 모셨습니다. 수행과 함께 많은 글을 쓰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시지요. 그 아름다운 삶의 얘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은 초여름 분위기가 납니다만, 강원도 산골은 계절이 얼마쯤 늦지요?

🌸 **법정** 아마 여기 서울보다는 한 이십일 정도 늦습니다. 오늘 나와 보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있던데, 제가 있는 곳은 지대가 높아서 아직 꽃 소식이 없고, 가끔 철새들이 날아오고 할 뿐입니다.

🌸 **이계진** 계신 곳이 워낙 깊은 산이라서 겨울에는 춥고 삭막한 분위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 **법정** 얼마 전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 때기도 아주 힘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바람도 좀 잠잠해지면서 봄기운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 **이계진**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사도 많았는데, 봄은 마치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절에 스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산속에서 보내시는 삶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법정** 중노릇이라는 게 큰 절이건 암자건 혹은 산중이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 시에 일어나고 아홉 시 내지는 아홉 시 반에 자는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하고, 먹는 것도 거의 같지만 먹기 싫을 때는 꼭 때가 되었다고 해서 먹는 것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제 일과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 새벽 여명의 시간에 개여울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밝아 오는 창을 바라볼 때입니다. 또 하나는 쓸고 닦은 다음 차를 한잔 마시는 그 시간이 가장 향기로운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계진** 새들의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모두 참 정겨운 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많이 전하고 또 많은 불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법정** 저 자신도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수지독송受持讀誦하지

만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승들이 남기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단 한 가지라도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실천할 때 그것이 수지독송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물질만능 시대, 물건이 귀하고 고마운 줄 모르는 세태에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고맙게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함몰되면 그 자신이 어디로 가 버리고 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이루어야 합니다.

🌸 **이계진**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너무 많이 가져서 화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초파일이면 절에 등을 다는데,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등을 달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남을 위해서 등을 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법정** 그렇습니다. 자비의 등처럼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등을 달기도 하고, 건강한 사회를 축원하는 마음에서 등을 달기도 합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등이라는 건 원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밝은 곳은 등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관등觀燈, 즉 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등을 밝히는 진짜 의미이고, 그런 의미를 사회에 밝힐 때 연등 행사가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계진** 초파일 때, 혼자 계신 강원도 산골에도 등을 켜십니까?

🌸 **법정** 일반 신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부처님께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 살면서 등을 켜 본 적은 없습니다. 불일암에 살면서도 전혀 등을 안 켜었습니다. 한번은 부산에 사는 신도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등을 잔뜩 접수해서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난 준비한 것도 없고 등 밝히는 것도 내 성미에 맞지 않으니 큰 절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도는 꼭 불일암에 등을 밝혀야겠다고 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한 잡지사에서 부처님 말씀을 담아『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별책 부록을 냈습니다. 그 잡지를 사서 교도소나 군대 처럼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것이 불일암에 불 켜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등을 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 **이계진**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이 법정에 서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왜 그토록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어 은닉했는지, 왜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의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또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쳐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정**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만족할 줄 알면 그 자체로 부자나 다름없고,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게 가난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신 최후의 설법을 담은 『불유교경佛遺教經』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온하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조그마한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자기 분수를 안다면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괜한 허욕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징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런 추태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가져야 할 것인가,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큰 관점에서 고민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이 글은 1996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약수암에서 법정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 대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담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4회(6월~9월 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옛날 코살라 국에 장수왕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장생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왕은 자비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비바람이 순조롭고 오곡이 풍성해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노래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포악한 왕은 장수왕이 번영하는 것을 시새워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장수왕의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나아가 맞서 싸우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왕은 이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이기면 저들이 죽을 것이고, 저들이 이기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저쪽 군사나 이쪽 군사나 다 소중한 목숨들 아니냐. 누구나 제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아끼워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왕이 이같이 그들을 만류한 뒤, 태자 장생에게 말했다.

“저 이웃 나라의 왕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내 신하들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선량한 백성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것이다. 나는 차라리 이 나라를 저 왕에게 내주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리라.”

왕과 태자는 성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웃 나라의 포악한 왕은 장수왕의 나라를 차지한 뒤, 보복을 해 올까 두려워 장수왕을 체포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고 황금 천 냥의 현상금을 걸었다.

어느 날 장수왕은 마을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덧없는 인생과 허무한 세상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한 늙은 바라문이 가까이 다가와 보시를 청하자,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새 임금은 나를 잡기 위해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목을 베어 가십시오.”

그러나 바라문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왕은 거듭 말했다.

“이 몸은 머지않아 썩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라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내 목을 베어 가지 않는다면 할지라도 내 몸은 언젠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자비를 베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려 더러운 이 몸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바라문은 이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러나 왕은 그를 따라가다가 성문지기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며칠 후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생 태자가 나무꾼으로 변장하고 부왕 가까이 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유언을 남겼다.

“내 마지막 부탁을 명심하라, 원한을 품어 그 재앙을 후세에게까지 남기는 것은 효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지 말라.”

장생은 차마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장생은 원수를 갚기 위해 그 포악한 왕의 신임을 받는 시종이 되었다. 물론 왕은 그가 장생 태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어느 날 장생은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사흘 동안 헤맸다. 그러자 왕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허리에 찔던 칼을 풀어 장생에게 맡기고 그의 무릎을 벤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장생은 그토록 별리 오던 기회가 바로 이때다 싶어 선뜻 칼을 빼어 왕의 목을 내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내 유언을 어기면 효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장생은 빼 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 마침내 왕이 깨어났다. 장생은 엎드려 왕에게 용서를 빌었다.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 헤매던 장생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 세 번이나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한 것입니다. 대왕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 혼이 자리를 옮겨 다시는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깊이 뉘우쳤다.

“실로 나는 포악해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소.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한 성인이었소.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 덕은 잃지 않았소.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어받은 뛰어난 효자요.”

그들은 손을 마주 잡고 숲에서 나와 왕궁으로 돌아갔다. 왕은 장생 태자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잡보장경(雜寶藏經) 제1권

*법정 스님 강론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눈앞의 일만 가지고 아등바등 파질 것이 못 된다. 끝도 없이 펼쳐진 아득한

생명의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인 우리들은 저마다 얽히고설킨 인연의
고나풀로 이어져 있다.

원한을 원한으로써 갇지 말라는 교훈은 윤회의 괴로움이 전제된 것이다.
되풀이되는 원한의 고리는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 제5계에 이런 교훈이 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어느 한쪽에서 생각을 돌이지 않고는 원한의 고리(연쇄 작용)에서 벗어
날 기약이 없다.

우리 속담에, 저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이치가 여기
에 있다.

3.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희목관찰중생 喜目觀察衆生 주야신 2

또 중생계와 같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알맞게 여러 말로 법을 설했다. 세상의 신통과 복력
도 말하고, 삼계가 다 두렵다고 말하고, 세상의 업을 짓지 말라
고 해 삼계를 떠나 막힌 소견의 숲에서 벗어나게 했다.

온갖 지혜의 길을 칭찬해 그들이 이승二乘의 자리에서 뛰쳐나오
게 하고,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말라고 해 유위有爲에나 무위
無爲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도량에 머물라고 해 그들에게 보리
심을 발하게 했으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가르쳐 마침내
일체지를 얻게 했다.

기쁜 눈으로 보는 주야신이 이러한 여러 방편으로 처음 발심한
때부터 쌓은 공덕을 말했다. 모든 선지식을 섬기며 부처님을
가까이해 착한 법을 수행할 때, 보시 바라밀을 행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렸으며, 지계 바라밀을 행해 왕위와 궁전과 권속
을 버리고 출가해 도를 닦았으며, 인욕 바라밀을 행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보살이 닦는 고행을 참고, 중생들이 내 몸과 마음에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는 것을 참았다.

정진 바라밀을 행해 일체지의 행을 일으키고 불법을 이루었
으며, 선정바라밀을 행해 그 선정 바라밀에 있는 도구[資具]와 수습
修習과 성취와 청정과 삼매 신통을 일으킴과 삼매의 바다에 들어
가는 문을 다 드러내 보였으며, 반야바라밀을 행해 그 반야바라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 일정 안내

6월 28일(토)	강화 전등사 - 정족산성 동문 - 산성길 - 정족산성 남문(서해랑길)	6월 2일(월)
7월은 무더위로 휴회		
8월 23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점봉산본소 - 곰배령 (곰배령 입장이 7월 1일 사전 예약제로 인해 8월로 변동되었으며, 반드시 참석하실 분만 접수해주세요.)	6월 30일(월)
9월 27일(토)	충북 괴산 학소대 - 능운대 - 채운암 - 우암 송시열 유적	9월 1일(월)
10월 25일(토)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 - 남석 광업소 - 동전 연못	10월 1일(수)

- **참가비** : 6월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8월~10월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밀에 있는 도구와 청정과 큰 지혜의 해, 큰 지혜의 구름, 큰 지혜의 장藏, 큰 지혜의 문을 다 드러내 보였다.

이때 선재동자는 앞에 나타난 온갖 희유한 일을 보고 듣고 순간순간 관찰하고 사유하고 이해해 깊이 들어가 편안히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위력과 해탈의 힘을 받들어 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힘과 널리 기뻐하는 자재력自在力해탈을 얻었다.

까닭은, 옛날에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주야신과 함께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여래의 신기한 힘을 입었기 때문이고, 불가사의한 선근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보살의 모든 기질[根]을 얻었기 때문이고, 여래의 종중種中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선지식의 힘으로 거두어 주기 때문이고, 여래의 보호와 염려를 받기 때문이고, 비로자나 여래께서 일찍이 가르쳤기 때문이고, 저런 선근이 이미 성숙했기 때문이고, 보현보살의 행을 닮을 만하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이 해탈을 얻고 크게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그 주야신을 향해 찬탄하고 말했다.

“천신께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것은 언제이며, 이 해탈을 얻은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주야신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시방의 왕이라 불리던 전륜성왕으로 불종佛種을 이은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문수사리동자가 바로 그 분이다. 그때 나를 깨우쳐 준 주야신은 보현보살의 화현이었다. 나는 그때 왕녀의 몸으로 그 주야신의 깨우침을 받아 부처님을 뵈고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며, 그때부터 불찰미진수겁을 지나오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친견했다.

묘등공덕당妙燈功德幢 부처님 때 이르러 이 큰 힘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해탈을 얻었고, 이 해탈로써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했다.

나는 다만 이 큰 힘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해탈만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마하살들은 잠깐 동안에 모든 여래의 처소에 두루 나아가 온갖 지혜의 바다에 신속히 들어간다. 잠깐 사이에 발취문發趣門으로 모든 대원海大願海에 들어가고, 잠깐 사이에 원해문願海門으로 미래겁이 다하도록 생각마다 모든 행을 내고, 낱낱 행 가운데 모든 세계의 미진수 몸을 나타내고, 낱낱 몸으로 모든 세계의 문에 들어간다. 낱낱 법계의 문마다 모든 세계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미묘한 행을 설하고, 모든 세계의 티끌 속마다 끝없는 여래의 바다를 보고, 여래의 처소마다 법계에 두루한 부처님들의 신통을 보고, 여래의 처소마다 지나간 세월에 닦은 보살행을 보고, 여래의 처소마다 법륜을 받아 가져 수호하고, 여래의 처소마다 삼세 모든 여래의 신통변화를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묘한 덕[普救衆生妙德]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도를 맑게 하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엎드려 절을 올리고 떠났다.

4. 법정 스님 편지

96. 6. 24
 덕조 스님
 이 법 집 2주에 ^{참으로} 애 많이 썼다.
 집을 하나 건사하려면 그만큼 일이 많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형성(形成)되는데도
 그만한 공이 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날 나는 무사히 귀산(歸山)하여 잘 지내고 있다.
 고속도로상 바로 내 앞 차선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목격하면서
 불은(佛恩)에 감사했다.
 오늘 사무실에 나가는 길에 이 사연을 쓴다.
 꼬박 20일 만에 사무실에 나간다.
 서재 도배할 때 바닥에 비닐을 걷어내고
 후꾸로 장판으로 했으면 좋겠다.
 판넬로 되어 있으니, 곰팡이 슬 일이 없을 것이다.
 창호지는 좀 더 질긴 지질로
 숙련된 사람이 발랐으면 한다.
 한 김에 다실 장 속도 다시 발랐으면 좋겠다.
 좋은 여름 이루기를 빈다.
 법정 합장

덕조(德祖)에게

이번 집 고치는 일에 참으로 애 많이 썼다.

집을 하나 건사하려면 그만큼 일이 많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형성(形成)되는데도

그만한 공이 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날 나는 무사히 귀산(歸山)하여 잘 지내고 있다.

고속도로상 바로 내 앞 차선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목격하면서

불은(佛恩)에 감사했다.

오늘 사무실에 나가는 길에 이 사연을 쓴다.

꼬박 20일 만에 사무실에 나간다.

서재 도배할 때 바닥에 비닐을 걷어내고

후꾸로 장판으로 했으면 좋겠다.

판넬로 되어 있으니, 곰팡이 슬 일이 없을 것이다.

창호지는 좀 더 질긴 지질로

숙련된 사람이 발랐으면 한다.

한 김에 다실 장 속도 다시 발랐으면 좋겠다.

좋은 여름 이루기를 빈다.

법정 합장

1996년 6월 24일 수류산방에서

법정 스님이 사랑한 ‘나무’

스님은 ‘나무는 성소(聖所)’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진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나이테의 바르고 일그러진 모양새에는 빈곤했던 해, 풍족했던 해, 견뎌낸 폭풍우와 시련들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신록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어 ‘연둣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겨울 숲을 사랑했습니다. 신록이 날마다 새롭게 번지는 초여름의 숲도 좋지만, 옷을 ‘휼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의 당당한 기상에는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대할 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함께 비춰본다면 나무로부터 배울 바가 많다고 했습니다. 겨울 숲에서는 나무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빈 가지에서 잎과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을 오두막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 있는 모습도 좋지만 희끗희끗한 줄기며 새로 피어나는 작고 여린 잎이 바람에 팔랑거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산중에 있는 겨울 나무 중에 ‘가장 정다운 나무’로 자작나무를 꼽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믿음직한

친구를 대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자작나무 앞에 서면 사람은 순수해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산에 들어와 손수 1백여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스님은 전나무의 ‘청청한 기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나무는 ‘영동지방에 잘 어울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정정한 나무 아래 서면 초라해진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지닌 질서와 겸허함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나무들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많은 가지가 찢겨 나가고, 수많은 잎이 떨어지는데 나무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불일암에 암자 터를 보러 왔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맛을 보려고 우물에 갔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벚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산중에 홀로 피어있는 벚꽃을 보자 친구들을 그 곁에 심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박나무를 비롯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 벽오동을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허공으로 뻗어가는 기상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랐습니다. 후박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스님은 후박나무 꽃을 ‘은은한 향기를 머금게 하는 정결하고 기품이 있는 꽃’이라 했습니다. 스님이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오두막으로 가려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손수 가꾼 나무들’이었습니다. 불일암을 떠나오던 날, 후박나무와 향나무 그리고 은행나무가 물끄러미 스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고 혼자서 가려느냐?’고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말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얹어맨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꼭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세상이 평온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옛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간적인 신의에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 선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선사가 젊은 시절 훨훨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 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시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걷히므로, 시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뒤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땀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전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땀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은 있었지만, 양식과 땀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이끼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그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미더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인한다 할지라도 저 말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천7백 고지나 되는 외딴 암자에서 묵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 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씩씩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 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1975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제6기 대학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사)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대학생 불교 인재 20명을 선발하여, 5월 24일(토) 길상사 설법전에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장학생들의 진로, 취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설명회와 이사장 덕조스님의 축하말씀과 차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었던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 맑고 향기롭게 모임 발족 시부터 현재까지 32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 장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휴학이나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산불 재난 복구 기금 2,000만원 전달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의 복구와 피해 주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2,000만 원(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각각 1,000만 원씩 모연)을 전달했습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자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자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하룻밤, 무소유

- 길상사 1박 2일 명상 수련 -

도심 속 고요한 숲, 길상사에서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이 열립니다.

묵언 수행, 108배 명상, 선 명상,
마당 쓸기, 발우 공양, 스님과의 차담,
1인 텐트에서의 하룻밤까지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비움으로 채워지는 여정 속에서
맑은 고요와 자유를 만나보십시오.

프로그램 일정

- 1차 : 7월 12일(토) 15:00 ~ 7월 13일(일) 15:00
- 2차 : 7월 19일(토) 15:00 ~ 7월 20일(일) 15:00
- 3차 : 8월 9일(토) 15:00 ~ 8월 10일(일) 15:00
- 4차 : 8월 16일(토) 15:00 ~ 8월 17일(일) 15:00

- 장 소 : 길상사 설법전
- 대 상 : 수행과 비움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 7만 원
- 신청 및 문의 : 02-3672-5945

gilsangsa.or.kr (길상사 템플스테이)

- 접수 마감 : 각 차수 선착순 50명



포교스님의 명상의 기초 / 이론과 명상

- 일 시 : 6월 14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6월 28일(토) 18:30~20:3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일요법회 - 청전스님 (달라이라마 제자)

- 일 시 : 6월 15일(일) 11시
- 장 소 : 설법전

스님과의 차담&사찰예절

- 지 도 : 동욱 스님(길상사 포교스님)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설법전

생전예수재[生前豫受齋]

불기 2569년 윤6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을 모시고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몫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회향입니다.” 소중한 법석에 동참하시어, 극락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2) 3672-5945

초재	6월 14일	* 동참금 : 1인 50만원 * 장 소 : 지장전 * 49일 매일 기도 (10:50 재, 14:00 기도) * 5재 : 대령, 관육, 함합소, 점안 * 막재 : 국가 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 모시고 봉행
2재	6월 21일	
3재	6월 28일	
4재	7월 5일	
5재	7월 12일	
6재	7월 19일	
막재	7월 26일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6월 7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하안거 결제, 보름기도

- 일시 : 6월 10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6월 13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6월 1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6월 2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법정 스님의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원고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 될 계획이오니,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clean94@hanmail.net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